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9월

선교편지 제 13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 10시, '아팔라야 예일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아팔라야 사역은 3년 전,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리스찬 학교 교장을 만나게 해 주셔서, 매주 금요일 채플 (Chapel)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토요일에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두번씩 기타, 컴퓨터, 프로젝터,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간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 하시길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 아팔라야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격 속에 작년 12월 1일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3번 스쳐 지나갔고, 건축 중인 예배당 안으로 물이 넘치는 홍수를 만났고, 마침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더불어 건축 비용도 증가되어, 초기에 계획했던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완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팔라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디고스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20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참석할 수 없고, 아기를 동반한 어른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회의 뉴 노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아팔라야 사역을 시작하여 교회까지 건축하게 되었는데, 가장 환영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까이 오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먼저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 18:16)

예배 시간이 가까워 집에 따라, 마음이 초조해 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같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마을을 방문하며 전도 하였지만,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과연 몇명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할까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에 가까이 맞추어 낮익은 이웃 주민들의 모습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 예배당 앞에서 참석자의 인적 사항을 적고, 신발 바닥을 알코올로 닦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을 알코올로 또 닦게 하고, 체온계로 열을 측정한 다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간격을 띄어 배치한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시작되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당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 깊은 순서도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아직 20살이 안되어 교회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들이 장학금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코로나 규정에 따라 식사나 음식을 나눌 수 없어서, 참석한 모든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얼굴 전체를 가리는 Face Shield Mask를 기념품으로 나누며 헌당 감사 예배의 기쁨을 더 했습니다.

아팔라야 지역은 디고스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 구역으로 해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바닷가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그렇듯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더 열악합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항상 지진, 홍수, 쓰나미 (Tsunami)를 염두에 두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이지만 디고스 내에서 모슬렘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아팔라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도 모슬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땅 끝에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과 같은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팔라야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가는 선교의 여정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